

1434년 辛保安 妻 鄭氏 分財記 연구*

손 계 영**

1. 머리말
2. 분재기 원소장처 영월신씨의 가계
3. 1434년 정씨 분재기의 성격과 내용
4. 정씨 분재기를 통해 본 조선전기 재산상속의 특징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은 경북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1434년 정씨부인이 작성한 분재기이다. 현존하는 분재기의 대부분은 16-17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이 자료는 현재 공개된 분재기 가운데 시기적으로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조선 초기의 것이다. 등장인물, 가족구성, 분재양상 등의 측면에서 여말선초 사회상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 자료로 판단하였다. 해당 분재기는 앞부분 손상이 심하여 분재 배경과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대략 부친 신보안이 사망하기 이전 1418년에 1차 분재가 있었고, 16년이 지난 1434년에 정씨부인의 노비, 1차 분재 시 누락된 노비, 각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5-KFR-1230006)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조교수 / sonkey@cu.ac.kr

처에서 傳得한 노비 등을 2남 2녀에게 분재한다는 내용으로 추측된다. 현재 2남 2녀에게 분재한 전체 내역인 分級文記는 전해지지 않으며, 그들 중 장남 辛斯鳳에게 분재한 내역만을 따로 기록한 것부문기[衿付文記]만 남아있다. 장남 신사봉에게 분재된 재산은 모두 노비였으며, 8곳의 所從來에서 전래된 노비는 총 51구였다.

정씨 분재기를 통해 여말선초의 가족구성과 상속문화 및 조선전기 재산상속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신보안 측과 정씨부인 측 양가에 승려 삼촌이 있었다는 점과 혈족인 승려로부터 노비가 분재되어 전래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고려말 사대부 집안 자식들 가운데 1명은 승려가 되었다는 기록과 같이 관인층 가문의 자제가 불교에 출가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방계 혈족으로부터의 노비 전래 사례가 다양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所從來가 父邊, 母邊, 妻邊, 外祖 등 직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정씨 분재기에서는 從母, 三寸叔, 五寸叔母, 同生弟 등 5곳의 방계 혈족 전래 사례가 직계 사례보다 많으며, 방계 전래 노비수도 직계 전래보다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15세기, 分財記, 것부문기[衿付文記], 경주 영월신씨, 재산상속, 辛保安, 辛斯鳳

1. 머리말

分財記는 가족의 재산상속 원칙과 상속결과를 기록하여 후대에 남긴 문서이다. 현존하는 분재기 자료는 주로 16~17세기에 작성된 것이 가장 많으며 18세기 분재기부터 수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발굴되어 공개된 분재기의 수량은 5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¹⁾

그간 조선시대에 작성된 분재기 자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시도되었다. 분재기를 통한 재산상속제와 관련된 연구로는 재산상속에 대한 법제 분석, 분재기에 기록된 재산의 계량적 분석 등 상속제의 변화 과정과 원인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해석한 종적 연구뿐만 아니라 각 가문 사례별 미시적 연구를 시도한 횡적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노비 존재 양태, 양반가의 농업경영 등 사회경제사 분야에서도 분재기 분석을 통해 상당량의 연구가 발표되었고, 분재기 소장 계층의 사회적 양상과 생활상을 연구하는 사회사 분야에서도 분재기가 주요 자료로 이용되었다.²⁾ 이와 같이 분재기는 조선시대의 가족,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이기에 다양한 종류의 분재기가 지속적으로 발굴·공유되어 여러 분야에서의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요 자료의 발굴과 공유, 연구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1434년 신보안 처 정씨 분재기에 주목하였다. 작성시기가 조선초기에 해당되고, 재산상속의 주체인 財主와 상속받는 상속인이 명확하며, 조선초기의 재산상속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분재기 가운데 1434년 정씨 분재기보다 이른 시기에 작성된 분재기로는 해남윤씨 가문의 1354년 尹光典 별급문기, 용인 의

1) 문숙자는 14세기 4건, 15세기 26건, 16세기 200건, 17세기 230건, 18세기 68건, 19세기 6건, 연대 미상 6건 등 모두 540건을 분석·연구하여 발표하였으며, 이후 분재기는 계속적인 발굴과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2004. ;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문서의 연구현황과 과제」, 『영남학』 10, 2006.

2) 문숙자, 위의 논문, pp.160-172.

령남씨 가문의 1382년 百姓卜莊 별급문기, 1392년 태조 이성계 분급문기, 1401년 태조 이성계 별급문기, 영주 인동장씨 가문의 1404년 장진 처 신씨 남매 화회문기, 예안 오천 광산김씨 가문의 1429년 김무 분급문기 등 6건이 있다.³⁾ 즉, 본 분재기는 현재 공개된 분재기 가운데 시기적으로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조선초기의 중요 자료인 것이다. 기존에 간행된 자료 및 연구를 통해 15세기 분재기는 현재 총 26건이 공개되어 있으나, 그 중 20건이 15세기 후반의 것이며 15세기 전반 분재기는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또한 여말선초 분재기 자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재산상속과 가족문화에 관한 연구 역시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말의 가족문화를 엿볼 수 있는 1434년 정씨 분재기를 통해 조선초기 분재기 형태와 재산상속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434년 정씨 분재기는 처음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2003년 남권희의 연구에서는 경북대 중앙도서관의 중요 자료를 소개하며 영월신씨 가문의 정덕연간 교지와 본 분재기를 언급한 바 있다.⁴⁾ 배재홍의 연구에서는 1434년 정씨 분재기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경북대 소장 영월신씨가 16세기 분재기 4건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경주 영월신씨 가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시하였다.⁵⁾ 2007년 필자의 연구에서는 경북대 소장 고문서를 분석하여 인물별·지역별·사건별·문중별 키워드를 통해 경주 영월신씨 고문서 75건을 찾아내고, 15세기부터 19세기 활동하였던 영월신씨 문중의 중요 인물, 문중이 경주에 입향한 시기, 문중의 위기사건과 배경, 호구내역과 개명 등에 대해 다루었다. 이때 영월신씨 고문서 75건 가운데 하나의 문서로 정씨 분재기가 간략하게 소개되었다.⁶⁾ 또한 2009년에는 정씨 분재기를 탈초·번역하고 간략하게 소개하기도 하였다.⁷⁾ 그러나 본 분재기를 별도로 분석하여

3) 의령남씨의 南閭 遺書(1392-98)는 후대 전사본이므로 제외하였음. (문숙자, 「부록: 조선시대 분재기 일람」, 앞의 책, 2004, p.265. 참조)

4) 남권희, 「취암문고의 고서와 고문서 개관」, 『영남학』 3, 2003, p.203.

5) 배재홍, 「16세기 후반 경북 경주지방의 영월 신씨 분재기」, 『영남학』 3, 2003.

6) 손계영, 「수집 고문서를 통한 생활사 연구의 가능성 탐색 -경주 영월신씨 고문서를 중심으로-」, 『영남학』 12, 2007.

상세히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하다. 여말선초 가족구성과 재산상속의 단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보기 드문 자료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씨 분재기 한 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뤄 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정씨 분재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분재기의 출처인 영월신씨 가계와 인물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신보안을 중심으로 그의 아들과 후손의 세거지역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정씨 분재기를 중심으로 분재기의 소장처와 형태, 분재기 성격과 내용, 상속자 자녀의 구성과 상속 재산의 규모, 재산상속의 주체인 財主 정씨와 그의 圖畧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정씨 분재기를 통해 드러나는 조선초기 재산상속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재기 원소장처 영월신씨의 가계

정씨 분재기는 경주지역에서 세거하였던 영월신씨 가문에서 전래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辛保安 처 정씨부인이 그의 장남 辛斯鳳에게 재산을 상속하며 분재한 노비들을 기록한 문서이다. 영월신씨 신보안의 가계를 영월신씨 족보에서 확인해보면 <표 1>과 같다.⁸⁾

辛惟一의 기록에 따르면 영월신씨 辛君才를 鼻祖로 하여 그 후손들이 대대로 벼슬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였다.⁹⁾ 군재의 아들 辛毗는 太中大夫로 종3품 司營尹을 지냈던 인물로, 麗史에는 “영월읍 안에 우물이 있는데 지금 그 우물을 ‘辛毗井’이라고 부른다 하니 그의 존귀함을 알겠다.”는 기록이 있다.¹⁰⁾ 영월의 우물에 그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존경받았던 인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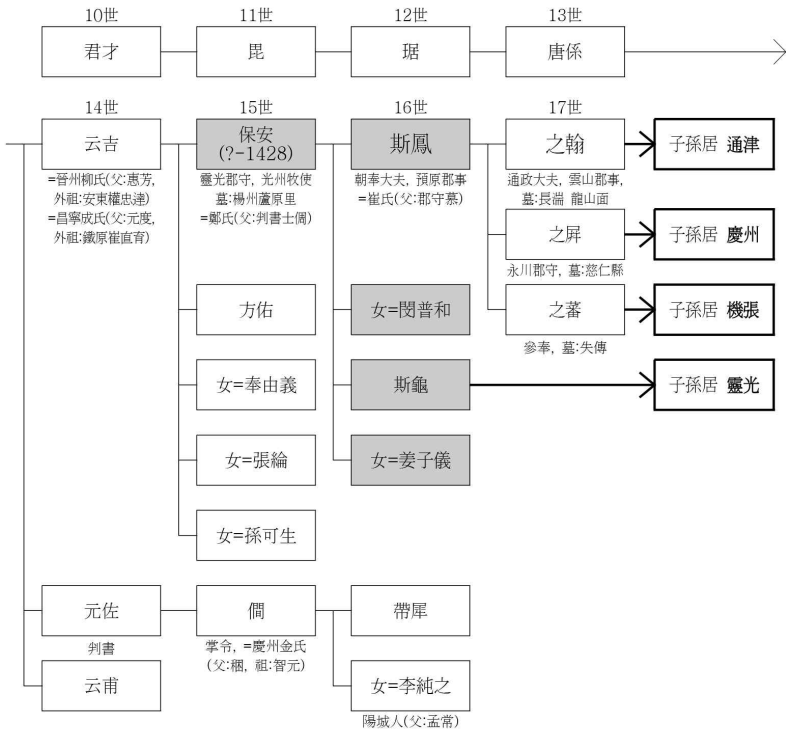
7) 손계영, 「홀어머니, 유산을 차별 없이」, 『고문서로 읽는 영남의 미시세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9, pp.73-77, 276-277.

8) 『寧越辛氏世譜』, 목활자본, 1925년.

9) 辛惟一 撰, 「族譜序」, 『寧越辛氏世德言行錄』(1925). “有諱君才 寧越之鼻祖也 其後遂奕世冠冕”

신비의 아들 辛琚는 國精大夫로 정2품 知門下贊成事を 지냈으며, 신거의 아들 辛唐係는 奉翊大夫로 典法判書를 지냈던 인물이다.¹¹⁾ 신당계는 文貞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漣川 白雲洞 서원에 배향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표 1> 영월신씨 가계 및 후손의 거주지



신당계의 아들 辛云吉은 奉翊大夫로 典儀寺事を 지냈으며, 靈光郡事を 지

10) 『寧越辛氏世譜』(1925) “太中大夫司營尹, 名見麗史, 寧越邑中有井, 至今稱辛某井, 蓋知其尊貴也.”

11) 『高麗史』 권37 世家 忠定王 원년(1349) 8월 27일.

넌 柳蕙芳의 딸과 혼인하였다. 운길은 牧隱 李穡과 친교가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색은 신운길의 죽음을 애도하며 시를 남겼는데, 그 시에 따르면 둘은 소깃적부터 水金 마을(전라도 정읍 古阜에 있던 마을)을 서로 왕래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또한 “魯國(영월의 옛 이름)의 향기는 지금 사라졌지만, 公州의 비단은 이미 재단되었네[魯國香今歇 公州錦已裁].”라고 하여 신운길이 공주의 목민관을 지내며 선정을 베풀었던 사실도 이색의 애도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²⁾

신당계의 아들 辛保安은 1397년(태조 6)에는 中郎將, 태종조에는 豐海道經歷, 이후에는 靈光郡守, 光州牧使 등에 제수되었으며, 광주목사로 재임하던 1428년(세종 10)에 광주목 관아에서 사망하였다.¹³⁾ 그는 영광과 광주에서 지방관으로 있던 시절을 제외하면 서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의 묘는 경기도 楊州 蘆原리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에게는 斯鳳과 斯龜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의 세거지와 관련하여 『寧越辛氏世德言行錄』 기록에 따르면,¹⁴⁾ 신보안의 장남 사봉은 계속 서울에 거주하였고, 차남 사구는 신보안의 영광군수 시절 영광의 사족 韓彝의 사위로 장가들게 하여 그 후손이 현재까지 영광지역에 세거하는 토대가 되었다. 차남 신사구 후손 家傳의 영광지역 영월신씨 고문서는 1994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자료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1996년 『고문서집성』 2책으로 영인되어 공개되었고, 2009년과 2014년에는 영인본을 모두 탈초·정서하여 『고문서집성』 2책의 정서본으로 간행된 바 있다.

장남 신사봉은 1434년 분재기 작성 당시 서명란에 ‘進勇副尉 中軍 司正’

12) 李穡, 『牧隱詩藁』 권33, 「哭辛判事云吉」

13) 신보안은 1428년 萬戶 盧興峻의 구타로 인해 광주목 관아에서 사망하였으며, 이는 광주목이 郡으로 강등되었던 중요 사건이었다. 『세종실록』 1429년 11월 13일 을묘. ; 1430년 2월 10일 신사. ; 1430년 3월 26일 병인. ; 『문종실록』 1451년 6월 7일 갑술.

14) 辛惟一 撰, 「族譜序」, 『寧越辛氏世德言行錄』(1925). “在國朝初 六代祖諱保安爲靈光太守 與郡人府尹韓彝相善 後牧光州 與韓婚一子 留于靈光 靈光之有辛氏 自此始 而太宗居京師 卽今郡守辛公汝和之兄弟是已…”

으로 기록하였는데,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종7품 진용부위의 품계에 중군 사정의 관직을 지냈다. 1457년에는 종5품 副司直의 관직으로 原從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¹⁵⁾ 그의 품계와 관직으로 보았을 때 그는 무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사봉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족보에서 그의 묘는 ‘墓失傳’으로 표기되어 있어 묘의 위치를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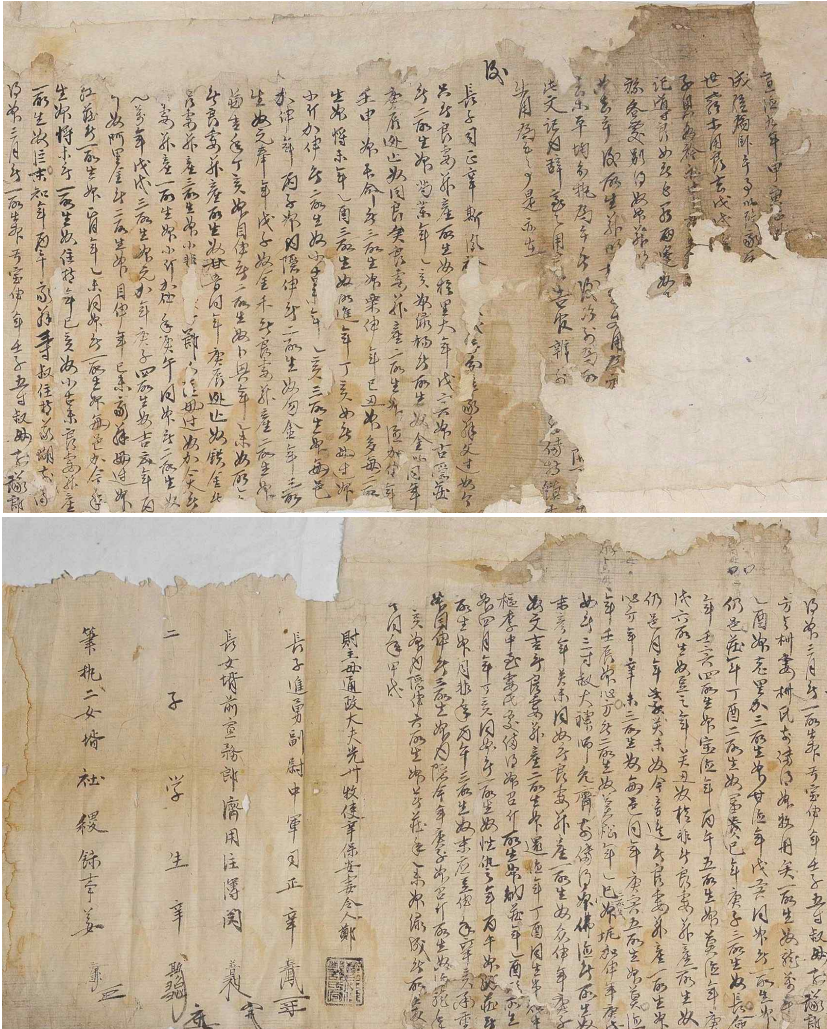
신사봉에게는 세 아들 之翰, 之屏, 之蕃이 있었다. 장남 지한은 通政大夫, 雲山郡守 등을 거쳤으며 그 후손들은 경기도 김포지역인 通津에서 세거하였다. 차남 지병은 永川郡守를 지냈으며 그의 묘는 慈仁縣에 위치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영남지역으로 이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의 후손들은 경주에 터를 잡아 현재 경주시 안강읍에 세거하고 있다. 신지병이 영남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생활문화로 보았을 때 처가살이로 인하여 이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아들과 그 후손들은 4대에 걸쳐 경주 강동면 호명리에 묘 자리가 위치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셋째 아들 지번에 대해서는 그의 후손들이 機張 지역에 거주한다는 기록 이외에는 관련 기록이 전무하다.

1434년 정씨 분재기는 신사봉의 차남 지병의 후손인 경주지역 영월신씨 집안에서 전래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정씨 분재기가 소장되어 있는 경북대 중앙도서관에 경주 영월신씨 집안의고문서 75건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차남 17세 之屏으로부터 18세 效忠, 19세 孟卿(1482-1519), 20세 恪, 21세 德龍, 22세 慄, 23세 商寶(1581-1643), 24세 汝擢, 25세 裕先, 26세 命栢(1672-1690), 27세 益蕃(1689-1743), 28세 守一(1710-1774), 29세 思訥(1732-1807), 30세 致白(1758-1808), 31세 錄(1783-1846)으로 이어지며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告身·분재기·호구단자·상서 등의 고문서가 현재 남아있다.¹⁶⁾

15) 『세조실록』 1457년 8월 12일 계묘.

16) 손계영, 앞의 논문, 2007, pp.6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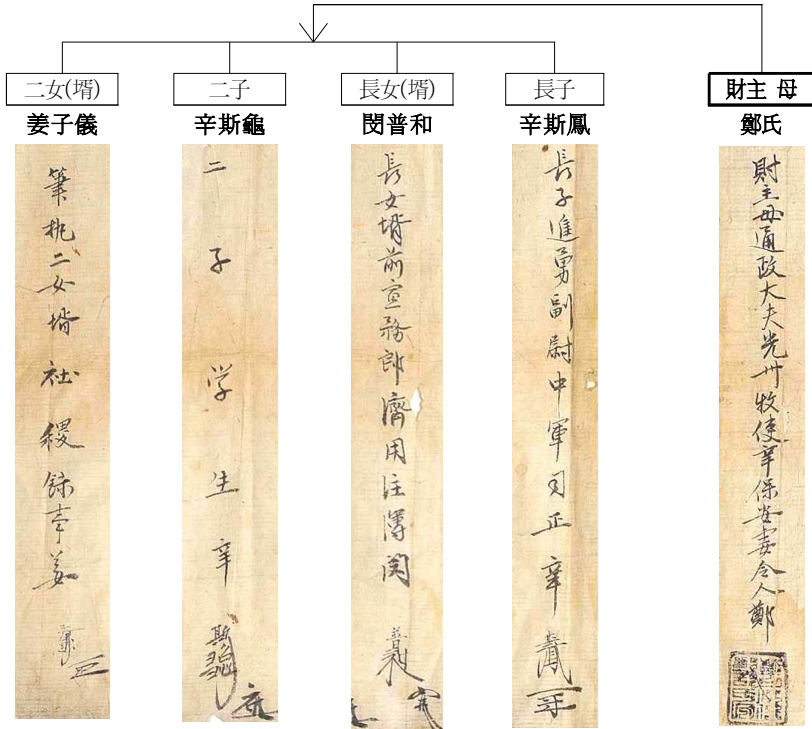
3. 1434년 정씨 분재기의 성격과 내용



<그림 1> 1434년 신안보 처 정씨 분재기

1434년 신보안 처 정씨 분재기는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문서이며, 2002년 한 개인에 의해 기증된 자료이다. 크기는 세로 37.0cm, 가로 117.1cm이며, 종이는 발초와 발끈폭이 선명하게 보이는 楮紙이다. 분재기의 상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부분에 기록된 前文의 아래쪽 부분이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조금씩 손상이 있고 뒤쪽으로 갈수록 온전한 상태이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별도의 배접 작업이 있었으며, 최근 제작된 한지를 이용하여 배접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분재 원칙, 분재 배경, 재주의 유언 등을 알 수 있는 앞부분의 손상으로 인해 작성배경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종이 손상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글자가 누락되어 노비의 所從來 및 노비명을 온전히 읽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작성 시기가 기록된 첫줄 앞부분이 손상되지 않아 해당 분재기가 宣德 9年(1434)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뒷부분이 온전하게 남아 있어 財主가 누구인지, 재산을 분재받았던 자식들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분재된 노비의 전반적인 소종래와 노비 수 등의 파악이 가능하다.

본 분재기의 뒷부분에는 분재 주체와 상속받은 이들이 기록되었는데, 분재 주체인 財主 항목에는 ‘母 通政大夫 光州牧使 辛保安 妻 令人 鄭氏’라고 기록하였으며, 그 아래 정씨의 圖署를 찍었다. 상속받은 이들은 4명으로, 첫 번째에는 ‘長子 進勇副尉 中軍 司正 辛’이라 적고 그 아래 그의 着名과 署押을 남겼고, 두 번째에는 ‘長女 壻 前宣務郎 濟用注簿 閔’과 그 아래 착명·서명이 있으며, 세 번째에는 ‘二子 學生 辛’과 착명·서명이 있다. 마지막은 둘째 사위이자 본 분재기의 작성자로, 앞부분에 ‘筆執’이라 하였고, 그 아래 ‘二女 壻 社稷錄事 姜’과 착명·서명을 기록하였다. 즉 재산을 상속받은 이들은 장남 辛斯鳳, 장녀 閔普和의 아내, 차남 辛斯龜, 차녀 姜子儀의 아내로, 모두 2남 2녀이다. 분재기에 기재된 부분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財主와 분재받은 자녀들의 표기 및 이들의 圖署·着名·署押

정씨 분재기는 분재 배경과 사유를 기록한 앞부분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판독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면, “선덕 9년 갑인 (정월) … 成給하는 일은 家(翁) … (별)세하옵신 바로써 지난 무술(년) … 자식 각 몫[衿]으로 … (문)기에 따라 나도 兩邊 奴(婢) … 各處에서 別得한 노비도 함께 …하니 後所生도 함께 (가져다) 사용(하며) … 거든 平均分執하되 이후 특별한 일이 (있거든) … 이 문기의 내용으로써 관에 고하여 바로잡고 (자손에게) 지니도록 전하여 (오래도록) 사용할 일이라는 것¹⁷⁾”이라고 기록하였다. 이상의 내용에서 누락된 사항을 추측하여 정리

17) “宣德九年甲寅[正月]□…□成給爲臥乎事叱段家[翁]□…□世教等用良去戌戌[年]

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단된다. 가옹 신보안이 사망하기 이전인 무술년(1418)에 1차 분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428년 신보안이 사망하게 되었고, 6년이 지난 1434년에 정씨 자신의 노비와 1차 분재 시 빠진 신보안의 노비, 각처에서 전득한 노비, 이후 태어난 노비 등을 2남 2녀에게 균등하게 나눠주었던 2차 분재가 있었는데, 본 1434년 정씨 분재기가 이에 해당된다.

정씨는 2차 분재에서 자녀 2남 2녀에게 분재하였으며 그들의 동의 아래 각자의 착명과 서압을 받았다. 그러나 본 분재기는 2남 2녀에게 분재한 전체 내역이 아니라 ‘長子 司正 辛斯鳳 衿’이라는 표기와 신사봉에게 분재한 노비 51구만이 기록되어 있다. 2남 2녀에게 상속한 전체 내역인 分給文記가 당시에 분명히 작성되었음에 틀림없으나 해당 분급문기는 발견된 바 없다. 일반적으로 분급문기 작성 시, 각 개인의 몫을 따로 기록한 것부문기[衿付文記]도 함께 작성하여 해당 상속자가 자신의 부분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⁸⁾ 따라서 본 분재기는 장남 신사봉의 몫을 별도로 기록한 것부문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해당 분재기에는 모친 정씨가 장남 신사봉에게 노비 51구를 상속하는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51구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所從來도 분명히 기록하였다. 분재기에 기록된 소종래는 모두 8곳으로 확인된다. 첫째, 가옹 신보안의 父邊, 둘째, 가옹 신보안의 母邊, 셋째, 정씨의 母邊, 넷째, 종이의 손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未詳人(從母邊으로 추정), 다섯째, 신보안의 三寸叔, 여섯째, 신보안의 五寸叔母, 일곱째, 정씨의 三寸叔, 여덟 번째, 정씨의 同生弟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소종래를 기록한 분재기는 그리 많지 않다.

□…□子息各衿亦中□…□記導良女矣身段兩邊奴[婢]□…□旅各處別得奴婢并以□…□爲去乎後所生并以[執持使]用[爲旅]□…□去等平均分執爲乎矣後次別爲所[有去等]□…□此文記內辭意乙用良告官辨別[子孫]傳持鎮[長]使用爲乎事是亦在”(1434년 정씨 분재기 前文)

- 18) 각 개인의 몫을 따로 기록한 것부문기의 사례로는 「1758년 母 衿給文記」(『고문서집성』 6, 144쪽), 「1835년 李(洽+土) 妻 鄭氏 衿付文記」(『고문서집성』 66, 577쪽) 등이 있다.

신보안 및 정씨의 모변과 부변으로부터 전득한 경우는 부모로부터 직계 상속받은 노비들이지만, 그 이외에는 직계가 아닌 방계 상속에 해당된다. 이들은 신보안 및 정씨와 어떤 관계이며, 어떤 사유로 신보안과 정씨에게 전래되었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표 2> 영월신씨 족보 4종에서 신보안 처 정씨 관련 내용

1807년 (정묘보)		配淑夫人 鄭氏 父判書士偶
1854년 (갑인보)		配淑夫人 鄭氏 父判書士偶
1902년 (임인보)		配淑夫人 鄭氏 父判書士偶
1935년		配淑夫人 延日鄭氏 父判書士偶

신보안에 대해서는 영월신씨 족보 및 언행록,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을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나, 그의 부인 정씨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우선 정씨의 본관을 살펴보기 위해 4종의 영월신씨 족보(1807년본, 1854년본, 1902년본, 1935년본)의 신보안의 항목에서 정씨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1807년본·1854년본·1902년본의 경우 정씨에 대해 ‘淑夫人 鄭氏 父 判書 士偶’으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즉 신보안 처 정씨의 본관은 알 수 없으며, 그의 부친은 판서 鄭士偶인 것이다. 반면 1935년본에서는 이전의 족보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정씨의 본관이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정씨의 본관은 延日로 표기되어 있으며, 그의 부친은 이전 판본과 동일하게 정사적으로 표기되었다. 우선 다양한 사료에서 정사척에 대해 살펴보면 『고려사』와 『태조실록』에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A) 전 호조판서 鄭士偶이 상서하기를 “佛法은 국가에 福利를 가져다주니, 마땅히 숭상하고 받들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때 말하는 자들이 왕이 불교를 좋아하는 폐단을 많이 비판하였는데, 김전과 정사척이 이러한 말로 왕의 마음에 들었다.¹⁹⁾

B) 도평의사사에서 임금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慣習都監 判事 정도전·왕강과 副判事 鄭士偶이 典樂署의 武工房을 거느리고, 文德·武功·夢金尺·受寶籙 등 새 음악을 올렸다.²⁰⁾

이상의 내용을 통해 정사척은 공양왕 3년(1391) 이전에 호조판서를 역임하였으며 공양왕에게 불교 증흥을 위한 상소를 올렸던 인물이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태조 2년(1393)에는 관습도감 부판사의 직책으로 정도전, 왕강과 함께 태조 임금에게 새로운 음악을 올려 잔치를 베풀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정사척은 여말선초 호조판서, 관습도감 부판사 등의 직책을 통해

19) 『고려사』 권46, 공양왕 3년, 1391년 6월 1일 병진.

20)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1393년 10월 17일 기해.

임금을 보좌하며 정치적 행보를 취했던 인물로 보인다. 그러나 정사척에 대한 더 이상의 기록은 찾기 어려우며, 그의 본관조차 기록에서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유일하게 1935년에 간행된 『영월신씨세보』에서 신보안 처 정씨가 연일정씨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연일정씨 족보 어디에도 정사척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이전에 간행된 1807년본·1854년본·1902년본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본관이 1935년본부부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표 3> 財主 鄭氏 圖署의 印文 확인 과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재기에는 재주 정씨의 도서가 찍혀있다. 만일 정씨의 圖署 印文을 판독할 수 있다면 정씨 본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이가 서로 粘連되어 있는 위치에 도장이 찍혀 있어 종이 표면의 높이가 달라 인문이 선명하지 않고, 배접 처리 과정에서 종이가 미세하게 비뚤어지고 작은 공간이 생겨 인문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뚤어진 종이를 인해서 생긴 작은 공간을 포토샵으로 삭제하고 인문을 선명하게 보이도록 가필하여 수정한 결과 정씨의 본관을 찾을 수 있었다. 정씨 도서의 인문 확인 과정은 <표 3>과 같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씨 도서에는 '草溪鄭氏'라는 인문이 새겨져 있고, 신보안 처 정씨의 본관이 草溪

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초계정씨 족보 어디에도 정사척과 그의 딸 정씨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1434년 정씨부인이 장남 신사봉에게 상속한 노비의 수는 모두 51구이다. 51구 노비의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누구의 소생인지, 노비의 나이는 어떠한지 등 노비의 구성을 분석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장남 신사봉에게 상속된 노비의 구성

남녀 구분	奴				婢				합계
노비수	24구				27구				51구
소생 구분	奴所生				婢所生				합계
노비수	14구				37구				51구
나이 구분	1-10세	11-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세 이상	미상	합계	
노비수	10구	12구	10구	9구	4구	3구	3구	51구	

첫 번째로 노비의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奴 24구, 婢 27구로 비가 노보다 3구 많으나 비슷한 성비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누구의 所生 인지를 남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奴의 所生으로 표기된 노비가 14구, 婢의 所生으로 표기된 노비가 37구이다. 70% 이상이 비의 소생으로 표기되었다. 노의 소생으로 표기된 14구 가운데 1구를 제외한 13구가 奴娶良女 소생으로 확인된다. 세 번째로 노비의 나이를 분석해보면, 1~10세 10구, 11~20세 12구, 21~30세 10구, 31~40세 9구, 41~50세 4구이며, 51세 이상과 나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각각 3구이다. 전반적으로 나이가 30세 이하로 어리고 젊은 노비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분재 시기가 신보안이 살아있던 1418년 1차 분재 이후 16년이 지난 시점이고 이때 1418년 이후 태어난

노비, 1차 분재에서 누락된 노비, 각처에서 전득한 노비 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나이가 젊거나 어렸던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확인되는 노비 가운데 1~10세 노비의 분포가 전체 20%를 차지하고, 11~20세의 분포가 25%를 차지하고 있어 20세 이하 노비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 노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이들을 돌보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씨 분재기의 노비 구성을 보면 어린 노비는 부모 노비와 함께 묶여 상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체로 15세 이하의 노비들은 부모 노비와 함께 상속되었으며, 최대 18세까지 부모 노비와 함께 묶여 상속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례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어린 노비가 부모 노비와 함께 분재된 사례

번호	부모 노비	나이	자식 노비		나이
1	婢 正月	20세	一所生	婢 每邑加 (今年生)	1세
2	婢 四月	28세	一所生	奴 性仇之 (年丙午)	9세
3	婢 納藏	30세	(二)所生	婢 月非 (年丙午)	9세
			三所生	奴 末應豆伊 (年辛亥)	4세
4	奴 末彦 (良妻并産)	32세	一所生	奴 衆伊 (年庚子)	15세
5	婢 甘德	37세	一所生	婢 仍邑藏 (年丁酉)	18세
			二所生	婢 富貴己 (年庚子)	15세
			三所生	奴 長命 (年壬寅)	13세
			四所生	婢 寶德 (年丙午)	9세
			五所生	婢 莫德 (年庚戌)	5세
			六所生	奴 豆之 (年癸丑)	2세
6	婢 心方	44세	二所生	奴 莫松 (年乙巳)	10세
			三所生	婢 坑加伊 (年庚戌)	5세
7	婢 小斤加伊	45세	二所生	奴 口萬 (年戊戌)	17세
			三所生	婢 元加 (年庚子)	15세
			四所生	奴 吉凶 (年丙午)	9세

부모 노비와 함께 묶여 분재된 자식 노비의 나이는 대부분 15세 이하이며, 상속된 노비 가운데 가장 어린 경우는 <표 5>의 1번 사례인 婢 正月의 자식 每邑加(今年生, 1세)이다. 그는 분재기가 작성된 1434년에 태어나 돌이 되기 전에 분재되었으며, 그의 어머니 正月도 20살의 어린 나이였다. 어린 나이의 자식 노비들은 대부분 어머니와 함께 상속된 반면, 아버지와 함께 묶인 사례도 1건 확인된다. <표 5>의 4번과 같이 奴 末彦(32세)과 良妻 사이에 태어난 一所生 奴 衆伊(15세)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함께 묶여 상속되었던 것이다. 부모 노비와 함께 묶여 상속된 자식 노비의 수는 一所生 1명인 경우(표 5의 1번, 2번, 4번)도 있는 반면, 많은 경우에는 6명의 자식과 함께 분재된 사례도 있다. <표 5>의 5번 婢 甘德(37세)의 경우에는 감덕의 일소생 18세, 이소생 15세, 삼소생 13세, 사소생 9세, 오소생 5세, 육소생 2세 등 6명의 자식이 어머니와 함께 묶여 장남 신사봉에게 상속되었다. 이는 제주 정씨부인이 그녀의 2남 2녀에게 감덕의 소생들을 따로 나누어 분리 상속한 것이 아니라 감덕과 그의 소생들을 일괄로 묶어 상속하였음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 5>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婢의 출산 주기이다. 2구 이상을 출산한 비의 사례를 살펴보면, 비가 자식을 출산한 뒤 그 다음 자식을 출산할 때까지의 기간이 2년 2건, 3년 2건, 4년 2건, 5년 2건, 6년 1건으로 확인된다. 즉 2구 이상 다산한 비의 출산은 일반적으로 2~5년 주기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4. 정씨 분재기를 통해 본 조선전기 재산상속의 특징

1434년 신보안 처 정씨 분재기에는 노비의 소종래를 상세하게 기록하였으며, 모두 8곳에서 전래된 노비 51구를 장남 신사봉에게 상속하였다(표 6 참조). 분재기의 소종래는 일반적으로 재주의 부변과 모변, 처가 또는 외가의 부변과 모변 등 직계 중심인 사례가 대부분이다. 17세기 이후부터는 부친의

재산과 모친의 재산이 크게 구별되지 않고 하나로 흡수되면서 분재기의 소종래 표기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²¹⁾ 그러나 16세기 이전까지는 결혼한 여성과 남성의 재산은 분명하게 구분하였으며, 분재기에서도 노비의 소종래가 명확하게 표기되었다.

〈표 6〉 1434년 정씨 분재기에 표기된 노비의 소종래 및 노비수

기술 순서	소종래(所從來)		노비수	신보안 또는 정씨와의 관계
	분재기 표기 (그대로)	분재기 표기에 대한 해석		
1	家翁父邊	辛保安의 父邊	7	직계
2	女矣母邊	鄭氏의 母邊	8	직계
3	節[人][從]母邊	(鄭氏의) 節人 從母邊	5	3촌
4	家翁母邊	辛保安의 母邊	4	직계
5	家翁三寸叔住持 義瑚	辛保安의 三寸叔 義瑚(住持)	1	3촌 (승려)
6	五寸叔母前議郎 方與權妻權氏	(辛保安의) 五寸叔母 方與權(前 議郎) 妻 權氏	14	5촌
7	女矣三寸叔大禪 師允齊	鄭氏의 三寸叔 允齊(大禪師)	3	3촌 (승려)
8	同生弟知中樞李 中至妻氏	(鄭氏의) 同生弟 李中至(知中樞) 妻氏	9	2촌
	합 계		42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씨가 장남 신사봉에게 상속한 노비의 소종래는 모두 8곳이다. 8곳 가운데 정씨와 신보안의 母邊 또는 父邊으로부터 전래된 경우가 3곳이며 노비수는 19구이다. 그 외에 직계가 아닌 방계로부터

21) 김영나, 「15~16세기 광산김씨 예안파의 분재기에 나타난 노비의 존재양상」, 『조선사연구』 17, 2008, p.71-72.

터 전래된 경우가 5곳이며, 노비수는 32구이다. 후자의 방계 전래된 노비의 소종래 5곳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신보안의 三寸叔인 住持 義瑚로부터 전래된 노비는 1구로 표기하였다. ‘주지’라는 용어와 ‘의호’라는 이름으로 보았을 때 그가 승려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신보안의 五寸叔母인 方與權의 아내 權氏이다. 그녀로부터 전득한 노비는 14구로 표기되어 있다. 세 번째는 정씨부인의 삼촌숙인 大禪師 允齊이며, 전래된 노비는 3구이다. 대선사 윤제 또한 승려임을 알 수 있다. 네 번째는 정씨부인의 同生弟인 李中至의 아내이며, 전래된 노비 9구를 기록하였다. 나머지 1곳은 분재기의 표면이 손상되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節人 從母邊’으로 추정되며, 이는 신보안 또는 정씨의 모친 자매인 從母로부터 노비 5구를 전래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선초기 재산상속의 특징과 정씨 분재기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신보안 측과 정씨부인 측 양가에 승려 삼촌이 있다는 점과 혈족인 승려로부터 노비가 분재되어 전래되었다는 점이다. 정씨 분재기의 노비 소종래 8곳 가운데 신보안 삼촌숙 주지 의호와 정씨부인 삼촌숙 대선사 윤제는 승려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여말선초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보안과 정씨부인은 조선 개국 이전에 태어났으며, 정씨의 부친 鄭士偶은 고려 말 호조판서를 역임한 인물이기에 그들의 삼촌인 주지 의호와 대선사 윤제 또한 고려 말 인물로 판단된다.

『宋史』 고려전에 의하면 “고려 인구 남녀 210만 가운데 兵·民·僧이 각각 1/3이다”라고 하였고, “비록 왕자제라 하더라도 항상 1인은 승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다.²²⁾ 고려시대 전체 인구에서 승려의 비중이 1/3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士夫에 1명의 자식은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였는데,²³⁾ 이는 사대부 집안의 자식들 가운데 1명은 승려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출가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에서

22) 『宋史』 卷487. 列傳246 外國3 高麗. “雖王子弟亦常一人爲僧”; “男女二百十萬口 兵民僧各居其一”

23) 『高麗史』 卷112, 列傳25 白文寶. “士夫有一子亦皆祝髮”

는 부역증 확보를 위해 승려 출가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정종대에는 한 집안의 아들 4명 가운데 1명의 출가를 허락하였고, 문종대에는 이전보다 완화하여 3명의 아들 가운데 1명은 출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⁴⁾ 기록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322개의 고려시대 묘지명을 분석한 관인증 자제의 출가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묘지명 전체의 21%에 ‘출가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출산수와 출가승려수 대비 출가율을 고려하면 ‘두 집 건너 한 집 꼴로 1명씩 승려가 배출’되었다고 한다.²⁵⁾ 현존 묘지명 분석에서도 사대부 집안에서의 승려 출가가 최소 3집에 1명 이상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사대부 집안에서 자제가 승려로 출가하는 문제는 불교 의례가 매개하는 사회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해석되기도 하였다. 사대부 집안은 그들 집안의 의례를 담당할 수 있는 승려 또는 사찰과 꾸준히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를 위해 가문의 자제를 승려로 출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가문 자제의 출가는 고려중기 이후 증가하였으며 고려 말에는 귀족 가문의 자제가 불교에 출가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²⁶⁾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1434년 정씨 분재기를 살펴본다면 신보안과 정씨부인에게 모두 승려인 삼촌이 존재하였던 이유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 분재기에 의하면 주지 의호는 ‘家翁 三寸叔 住持 義珊’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신보안의 부친의 동생을 의미할 수도 있고, 모친의 동생(외삼촌숙)을 의미할 수도 있다. 만약 주지 의호가 신보안 부친의 동생이라면 영월 신씨 족보에서 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월신씨 족보에 의하면 신보안의 부친 云吉에게는 元佐와 云甫 2명의 동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로 아

24) 『高麗史』 권6, 世家 정종 2년(1036) 5월 14일 신묘, “凡有四子者, 許一子出家.”; 『高麗史』 권8, 世家 문종 13년(1059) 8월 25일 정해, “兩京及東南州·府·郡·縣, 一家有三子者, 許一子年十五, 剃髮爲僧.”

25) 한기문, 「고려시대 승려 출가 양상과 사상적 배경」, 『한국사학보』 40, 2010, pp.47-48 재인용.; 김용선, 「고려귀족의 결혼 출산과 수명」, 『고려금석문연구-돌에 새겨진 사회사』, 일조각, 2004, pp.128-130.

26) 이상균, 「여말선초 상·계례 변동과 사회적 관계의 재편성」, 『한국민족문화』 44, 2012, pp.195-200.

래 동생인 원좌는 판서를 역임하였고 혼인하여 후손이 있는 반면, 운보는 후손이 표기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름 이외에는 어떤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분재기에 등장하는 주지 의호가 신보안의 부친 윤길의 동생이라고 전제한다면 신운보일 가능성도 있고, 또는 족보에 수록되지 않은 윤길의 또 다른 동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씨 분재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승려 대선사 윤제의 경우에는 ‘女矣 三寸叔 大禪師 允齊’라고 표기하여 재주 정씨부인의 삼촌숙을 의미한다. 정씨부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계정씨이지만, 초계정씨 족보에서 그의 부친 정사척과 정씨부인을 찾을 수 없는 관계로 정확한 가족 관계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씨부인과 대선사 윤제의 관계를 추측해보면, 정씨부인의 부친 정사척 또는 그녀의 모친에게 1명 이상의 남동생이 있었고, 그 중 한 명이 승려로 출가하였던 것을 의미한다.

고려와 조선시대 승려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세속가문으로부터 노비 등의 재산을 상속받아 개인재산을 보유할 수 있었다.²⁷⁾ 이때 형제들과의 균분상속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승려라고 하여 재산상속에서 제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실록』에서 이와 관련된 조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 議政府에서 各年에 受判한 것으로 영구히 遵守할 奴婢 決折 條目을 만들어 올리니, 윤택하였다. 무릇 20條였다. … 僧人은 父母를 하직하고 出家한 뒤에는 俗例에 따라 祖業奴婢를 다투고 바랄 수 없으니, 부모에게서 전하여 받은 것 이외에 다투고 바라는 자는 금지하고, 죽은 뒤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게 하고 上喪의 例에 따라 四寸에 한하여 나누어 주고, 사촌이 없으면 屬公할 것.²⁸⁾

위 내용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노비를 상속받았으나, 상속 결과에 대해 형

27) 이병희, 「고려시대 승려의 개인재산」, 『전통사론』 7, 2001, pp.117-118.

28) 『태종실록』 태종 5년(1405) 9월 6일.

제들과 다투거나 더 바라거나 할 수 없으며, 사후에는 상속받은 노비를 사촌 이내의 관계인 혈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였던 것이다. 정씨 분재기에서도 이러한 조목이 적용되어 삼촌 승려의 노비들은 그의 사후에 사촌 이내 혈족들에게 전래되었고, 이것이 다시 그들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중 승려의 비율이 높았던 여말선초의 사회상을 보여준다는 점과 승려의 사후에 私家로부터 상속받은 노비들에 대한 전래경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1434년 정씨 분재기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씨 분재기가 보여주는 조선초기 재산상속의 또 다른 특징은 所從來 표기를 통해 방계 혈족으로부터의 전래가 다양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상속 재산의 출처인 소종래 표기는 16세기 이전 분재기에서는 명확하였던 반면, 17세기부터는 소종래 표기가 축소되거나 전혀 표기하지 않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모변 전래 재산이 감소되거나 모변 재산이 부변 재산에 흡수되어 관리됨으로 인해 별도의 소종래 표기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²⁹⁾ 소종래 표기가 명확한 15-16세기 분재기를 살펴보면 재산의 출처가 대부분 父邊, 母邊, 妻邊, 外祖母, 外祖父 등 직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간혹 三寸 또는 妻外五寸叔父 등 방계 혈족의 전래가 표기되기는 하지만 방계 혈족의 전래는 극히 드문 사례이다.³⁰⁾

반면, 정씨 분재기에는 방계 전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보안의 부변과 모변, 정씨의 모변 등 직계 전래도 살펴볼 수 있으나, 직계 사례보다 방계 전래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직계 전래 노비수(19구)보다 방계 전래 노비수(32구)가 많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방계 혈족으로부터 상속된 노비는 총 5곳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중 2곳은 앞서 언급한 신보안 삼촌숙 주지 의호와 정씨부인 삼촌숙 대선사 윤제이고, 나머지

29) 문숙자, 앞의 책, 2004, p.58. ; 김영나, 앞의 논문, 2008, p.71.

30) 三寸邊 전래의 사례로는 1514년 광산김씨 金長龍 別給文記에서 삼촌 김장룡이 長姪 金綠에게 노비 5구를 분급하였고, 妻外五寸叔父邊 전래 사례로는 1510년 노비 3구를 분급한 사례가 있다. 김영나, 앞의 논문, 2008, p.70.

3곳은 ①신보안의 오촌숙모 방여권의 처 권씨, ②정씨부인의 동생제 이증지 아내, ③정씨부인의 종모이다. 전자 2곳은 상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후자 3곳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434년 신보안의 장남 신사봉은 모친 정씨로부터 상속받은 노비 51구 가운데 부친 신보안의 오촌숙모 방여권의 처 권씨부인으로부터 전래된 14구의 노비를 상속받았다. 조선전기에는 夫婦別産制에 따라 부부 재산이 각자 관리되었으며 부부에게 자식이 없는 경우 부면 재산은 남편 쪽 혈족에게, 처면 재산은 부인 쪽 혈족에게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다. 신보안의 오촌숙모 권씨는 남편 방여권과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³¹⁾ 이로 인해 권씨의 사망 이후 소유하였던 노비가 자신의 혈족에게 전래되었던 것이고, 그 중 일부가 신보안을 거쳐 그의 장남 신사봉에게 전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신보안의 오촌숙모 권씨의 남편인 방여권은 『태종실록』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戶曹議郎을 지냈으며,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侍養父로 확인된다. 1413년 방여권이 노비문적 위조로 중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형조에서는 방여권을 斬刑에 처해야 한다고 상소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潛邸에 있을 때 방여권과 더불어 대문을 마주하여 生長하였으므로 차마 죽일 수 없다”며 다시는 방여권의 죄를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³²⁾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태종과 그의 아들 효령대군의 시양부였던 방여권은 특별한 관계였던 것이다. 또한 실록에 의하면, 방여권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권씨부인마저 사망하자 권씨의 族人 李孟暉와 南智라는 인물이 권씨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사헌부에 거짓말과 허위 무고를 하였고, 이 일로 시양자

31) 『세종실록』에 의하면, 1427년 고인 방여권의 아내 권씨부인이 사망하자 그녀의 族人 李孟暉와 南智라는 인물이 그녀의 재산을 차지하고자 노비 문서와 토지 문서를 감추었고, 방여권의 첩 자식 可生을 꾀어 방여권의 시양자인 자가 원래는 시양자가 아니라고 사헌부에 무고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세종실록』 1427년 6월 23일). 해당 기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방여권과 권씨부인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고, 이로 인해 권씨부인의 죽인들이 방여권의 첩자식을 이용해 그녀의 재산을 노린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 『태종실록』 1413년 9월 3일.

효령대군과도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³³⁾ 이는 방여권과 권씨부인에게 재산을 상속할 親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이고, 친자가 없는 권씨부인의 재산이 혈족에게 되돌아오면서 五寸姪 신보안에게 까지 허급되었던 것이다.

방계 상속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소종래는 정씨부인의 同生弟인 李中至의 아내이다. ‘李中至 妻氏’로 정확한 성씨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정씨부인의 동생제는 이중지가 아니라 그의 아내로 판단되기 때문에 ‘李中至 妻 鄭氏’가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이중지는 세종·세조 부자와 특별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중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에 대해 기록한 줄기가 『세종실록』에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그는 본관이 固城이며 1405년 武科에 합격하였고 1410년 重試에 발탁되었다. 또한 그는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이후 어린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을 侍養子로 삼았다.³⁴⁾ 세종조인 1419년 忠淸道 兵馬都節制使, 1422년 慶尙右道 兵馬都節制使, 1423년 左軍 摠制使, 1428년 右軍 摠制使, 1430년 兵曹參判, 1432년 漢陽府尹와 知中樞院事 등 중요 요직을 역임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사신으로 북경에 다녀오기도 하였다.³⁵⁾ 이중지가 세상을 떠난지 10년이 지나 수양대군이 세조로 왕위에 오르며 功臣을 선정하였는데, 이중지를 원종공신 1등에 녹훈하였다.³⁶⁾

그는 수양대군의 시양부였고, 중요 요직을 거쳤고, 수차례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왔고, 공신에 녹훈되었던 화려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의 부인 정씨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록에 의하면 이중지는 임금에게 “여러 해 외방에 나가 벼슬하였으므로 官妓를 營中에 두고 자식까지 낳았다”고 하며 이들을 양민으로 속량해 달라고 상언하였고, 임금은 형조에 명하여 모두

33) 『세종실록』 1427년 6월 23일.

34) 『세종실록』 1446년 2월 3일.

35) 『세종실록』 1419년 5월 10일 ; 1421년 2월 25일 ; 1422년 2월 16일 ; 1423년 1월 25일 ; 1428년 7월 5일 ; 1429년 5월 15일 ; 1430년 1월 29일 ; 1432년 3월 18일 ; 1432년 6월 5일 ; 1432년 8월 2일 ; 1435년 2월 8일.

36) 『세조실록』 1455년 12월 27일.

속량하게 한 바 있다.³⁷⁾ 후에 사헌부에 의해 “이중지가 正妻를 소박해 버려 농장에 두고 婢妾을 사랑하여 대접하기를 정실 아내와 같이 하여 家道가 바르지 아니하고 처첩의 차서를 잃었다”는 피소를 당해 처분을 받기까지 하였다.³⁸⁾ 또한 그의 줄기에는 “젊었을 때부터 酒色을 좋아하여 항상 娼妓를 두고 주색에 빠져 절제가 없었으며 正妻를 원수와 같이 대우하였다”고 기록하였고, “재상 이중지가 嫡室에게는 아들이 없고 기첩에게만 하나가 있었는데, 속량하게 해달라고 청하므로 이를 허락하였다”는 내용도 들어있다.³⁹⁾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중지는 지방관으로 근무하며 관기와의 사이에 아들을 두었고, 이들을 양민으로 속량하여 첩으로 삼았다. 정처를 소박하였다는 기록과 적실에게 아들이 없다는 기록으로 보아 적실인 정씨부인과는 일찍 헤어졌고 정씨는 홀로 남았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재산을 상속할 자녀가 없는 정씨는 자신의 재산을 本宗 혈족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동복형제들에게 전래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씨 분재기에서는 명확한 소종래를 표기하기 위해 ‘누구누구에게 전득한’이라고 표현할 때 대부분 윗사람께 전득하였다는 높임의 의미로 ‘…前傳得’이라고 기술한 반면, 동생제 이중지 처씨의 경우에만 낮춤의 의미를 갖는 ‘…處傳得’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이중지 처씨가 자신의 손아래 동생이기 때문에 낮춤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 다른 방계 전래의 사례는 정씨의 從母로 추측된다. 분재기 종이의 손상으로 정확한 판독이 불가능하지만, 정씨의 모친 자매인 종모로부터 전래된 노비가 정씨의 장남 신사봉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계정씨 족보에서 정씨부인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녀의 종모가 누구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從母 글자 앞에 ‘節人’으로 추측되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정씨의 종모는 남편과 사별하여 개가하지 않고 홀로 지내다 죽었다는 의미로 ‘死節人’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씨의

37) 『세종실록』 1439년 윤2월 13일.

38) 『세종실록』 1439년 11월 10일.

39) 『세종실록』 1446년 2월 3일 ; 『성종실록』 1478년 11월 23일.

종모는 재산을 상속할 자식 없이 홀로 지내다가 사후에 정씨부인에게 노비를 전래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자식이 있었다면 사전에 정씨부인에게 별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전기에는 후사가 없더라도 양자를 들이는 사례가 많지 않았고, 조선초기에는 양자의 사례가 더욱 많지 않았다. 때문에 無子息夫妻의 사례가 조선 후기에 비해 상당히 많았던 것이고, 이들에게는 직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동생남매에게 되돌아갔고, 동생남매도 없는 경우에는 本族의 삼촌, 사촌, 오촌에게 허급되었던 것이다. 1434년 정씨 분재기는 조선전기의 재산상속 양상을 이토록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5. 맺음말

현존하는 분재기는 주로 16-17세기에 작성된 것이 집중적으로 남아 있으며, 그 이전과 이 이후의 것은 많지 않은 편이다.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인 1434년 정씨 분재기는 현재 공개된 분재기 가운데 시기적으로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조선초기 분재기이며, 등장하는 인물, 가족구성, 분재 양상 등의 측면에서 여말선초 사회상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 자료로 판단하였다. 여말선초의 재산상속과 가족구성에 관한 자료와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씨 분재기의 발굴과 공개는 학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434년 신보안 처 정씨부인은 자녀 2남 2녀에게 재산을 분재하며 그들의 동의하에 분재기를 작성하였으나 4명의 자녀에게 재산을 분재한 전체 내역 기록인 분급문기는 전해지지 않으며, 2남 2녀 중 장남 신사봉에게 분재한 내역만을 따로 기록한 것부분기가 남아있다. 이것이 경북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정씨 분재기이다. 장남 신사봉에게 분재된 재산은 모두 노비였으며, 8 곳의 소종래에서 전래된 노비는 총 51구였다. 분재기의 앞부분 손상이 심하여 분재 배경과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부친 신보안이 사망하기

전 1418년에 1차 분재가 있었고, 16년이 지난 1434년에 정씨부인의 노비, 1차 분재 시 누락된 신보안의 노비, 각처에서 전득한 노비, 1차 분재 이후 태어난 노비 등을 2남 2녀에게 균등하게 나눠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판단하였다.

신보안 처 정씨는 영월신씨 족보에 의해 그녀의 부친이 고려시대 호조판서를 지낸 정사적으로 파악되었으나, 그의 본관에 대해서는 1935년본을 제외한 모든 족보에서 누락되었고, 1935년본에서만 ‘延日鄭氏’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정씨 분재기에 찍힌 그녀의 도서에는 포토샵으로 복원하여 판독한 결과 ‘草溪鄭氏’로 표기되어 있었고, 그녀의 본관이 ‘초계’임을 밝혔다.

정씨 분재기를 통해 드러나는 여말선초 가족구성·상속문화와 조선전기 재산상속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신보안 측과 정씨부인 측 양가에 승려 삼촌이 있었다는 점과 혈족인 승려로부터 노비가 분재되어 전래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고려말 사대부 집안 자식들 가운데 1명은 승려가 되었다는 기록과 같이 관인층 가문의 자제가 불교에 출가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그들 또한 부모로부터 노비를 상속받을 수 있었고, 사후에는 상속받은 노비를 사촌 이내 관계의 혈족에게 돌려주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신보안과 정씨부인의 삼촌 승려 또한 혈족인 조카에게 노비를 전래하였던 것이다.

정씨 분재기의 또 다른 특징은 명확한 소종래 표기와 방계 혈족으로부터의 노비 전래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소종래의 명확한 표기는 15-16세기 분재기의 특징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종래가 주로 부변, 모변, 처변, 외조모, 외조부 등 직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정씨 분재기에서는 從母, 三寸叔, 五寸叔母, 同生弟 등 5곳의 방계 혈족 전래가 직계보다 많으며, 노비수도 방계 전래 노비수가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오촌숙부 방여권의 사례와 동생제부 이중지의 사례를 실록기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방여권 부부와 이중지 부부 사이에는 재산을 상속할 자녀가 없었으며, 양자를 들이는 문화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조선전기에는 재산의 소종래에 따라 부부 각자의 혈족에게 되돌려주었던 것이고, 이러한 상속문화가 정씨 분재기에 적용되었던 것이다.

정씨 분재기는 여말선초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당시 재산상속과 가족문화에 관한 연구가 답보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분재기 형식과 재산상속의 분석을 통하여 여말선초 가족문화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만, 본 논문은 한 건의 문서로 해당시기의 일반적인 상속문화를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졌던 16세기 이후 분재기 연구성과와 충분히 비교하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차후에 이어지는 연구를 통해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18년 8월 1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8월 16일부터 9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9월 12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1434년 신보안 처 정씨 분재기」, 경북대학교 소장.
- 『寧越辛氏世德言行錄』(1925년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寧越辛氏合譜』(1784년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寧越辛氏世譜』(1807년본, 1854년본, 1902년본, 1924년본, 1935년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草溪鄭氏族譜』(1763년본, 1901년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固城李氏族譜』(1807년본, 1874년본, 1915년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김용선, 『고려금석문연구 -돌에 새겨진 사회사-』, 서울: 일조각, 2004.
-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서울: 경인문화사, 200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27』,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황위주 외, 『고문서로 읽는 영남의 미시세계』,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09.
- 권내현, 「조선 초기 노비 상속과 균분의 실상」, 『한국사학보』 22, 2006, pp.133-136.
- 김영나, 「15-16세기 광산김씨 예안파의 분재기에 나타난 노비의 존재양상」, 『조선사연구』 17, 2008, pp.53-77.
- 남권희, 「취암문고의 고서와 고문서 개관」, 『영남학』 3, 2003, pp.175-230.
- 문숙자, 「16-17세기 양반가 노비 가족의 존재 형태」, 『고문서연구』 32, 2008, pp.147-173.
- , 「조선시대 재산상속문서의 연구현황과 과제」, 『영남학』 10, 2006, pp.155-183.
- 박병호, 「여말선초의 친족의 칭호와 범위」, 『서울대학교 법학』 44-4, 2003, pp.94-113.
- 배재홍, 「16세기 후반 경북 경주지방의 영월신씨 분재기」, 『영남학』 3, 2003, pp.83-108.
- 손계영, 「수집 고문서를 통한 생활사 연구의 가능성 탐색 -경주 영월신씨 고문서를 중심으로-」, 『영남학』 12, 2007, pp.61-87.

- 안승준, 「영광 입석 영월신씨 고문서 해제」, 『고문서집성 27』, 1996, pp.5-23.
- 이병희, 「고려시대 승려의 개인재산」, 『전농사론』 7, 2001, pp.109-148.
- 이상균, 「여말선초 상·제례 변동과 사회적 관계의 재편성」, 『한국민족문화』 44, 2012, pp.179-210.
- 이정훈, 「고려전기 왕실 출신 승려들의 출가와 활동」, 『역사와 현실』 71, 2009, pp.93-125.
- 전경목, 「분재기를 통해서 본 분재와 봉사 관행의 변천 -부안김씨 고문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22, 2003, pp.249-270.
- 정구복, 「김무의 분재기(1429)에 관한 연구」, 『고문서연구』 1, 1991, pp.19-73.
- 한기문, 「고려시대 승려 출가 양상과 사상적 배경」, 『한국사학보』 40, 2010, pp.43-74.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부록> 1434년 신보안 처 정씨 분재기 정서

- 1 宣德九年甲寅□…□
- 2 成給爲臥乎事叱段家翁□…□
- 3 世教等用良去戊戌年□…□
- 4 子息各衿亦中□…□
- 5 記導良女矣身段兩邊奴□…□
- 6 跡各處別得奴婢并以□…□
- 7 爲去乎後所生并以□□使用□□
- 8 去等平均分執爲乎矣後次別爲所□…□
- 9 此文記內辭意乙用良告官辨別□□傳持鎖長
- 10 使用爲乎事是亦在
- 11 後
- 12 長子司正辛斯鳳衿□□□□分□家翁父邊奴今
- 13 只矣良妻并產所生奴於里大年戊寅婢古隱藏
- 14 矣二所生婢苟藥年乙亥婢綠楊矣所生奴金叱同年
- 15 庚辰逃亡奴同良矣良妻并產二所生婢德加□年
- 16 壬申婢長命矣三所生婢栗伊年己丑婢多每二所
- 17 生婢將末年乙酉三所生奴所進年丁亥女矣母邊婢
- 18 小斤加伊矣二所生奴小古末年乙亥三所生婢每邑
- 19 加伊年丙子婢內隱伊矣二所生奴勿金年三所
- 20 生奴元奉年戊子奴金禾矣良妻并產二所生婢
- 21 藏吉年丁亥婢目伊矣二所生奴卜興年乙未奴所乙□
- 22 矣良妻并產所生奴甘音同年庚辰逃亡奴鉄金矣
- 23 良妻并產三所生婢小非□□□節□□母邊奴加僉矣
- 24 良妻并產一所生婢小斤加伊年庚午同婢矣二所生奴
- 25 □萬年戊戌三所生婢元加年庚子四所生奴吉~~凶~~年丙
- 26 午奴阿里金矣二所生婢目伊年己未家翁母邊婢

- 27 紅藏矣一所生婢正月年乙未同婢矣一所生婢每邑加今年
 28 生婢將未矣一所生奴住持年己亥奴小古未良妻并產
 29 一所生奴巨末知年丙午家翁三寸叔住持義瑚前傳
 30 得婢三月矣一所生婢丐寶伊年壬子五寸叔母前議郎
 31 方與權妻權氏前傳得婢牧丹矣一所生奴龍萬年
 32 乙酉婢老里加三所生婢甘德年戊寅同婢矣一所生婢
 33 仍邑藏年丁酉二所生婢富■(貴)己年庚子三所生奴長命
 34 年壬寅四所生婢寶德年丙午五所生婢莫德年庚
 35 戌六所生奴豆之年癸丑奴於非矣良妻并產一所生奴
 36 仍邑同年■(壬)■(子)癸未奴今音進矣良妻并產一所生婢
 37 心方年辛未三所生奴每邑同年庚寅五所生婢莫德
 38 年壬辰婢心方矣二所生奴莫松年乙巳三所生婢坑加伊年庚戌
 39 女矣三寸叔大禪師允齊前傳得婢佛德矣所生奴
 40 末彦年癸未同奴矣良妻并產一所生奴衆伊年庚子
 41 奴文吉矣良妻并產二所生婢還德年丁酉同生弟知中
 42 樞李中至妻氏處傳得婢召斤所生婢納藏年乙酉□所生
 43 婢四月年丁亥同婢矣一所生奴性仇之年丙午婢納藏矣
 44 所生婢月非年丙午三所生奴末應豆伊年辛亥承重
 45 婢目伊矣三所生婢內隱今年庚子婢召斤所生奴□龍年
 46 □亥婢內隱伊六所生婢莫藏年乙未婢綠成矣所生奴
 47 □同年甲戌
- 48 財主母通政大夫光州牧使辛保安妻令人鄭 [着名][印]
 49 長子進勇副尉中軍司正辛 [着名][署押]
 50 長女婿前宣務郎濟用注簿閔 [着名][署押]
 51 二子學生辛 [着名][署押]
 52 筆執二女婿社稷錄事姜 [着名][署押]

Abstract

Study on 1434 Property Inheritance Record of Mrs. Joeng, the Wife of Shin Bo-an

Son, Ke-young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Property Inheritance Record” written by Mrs. Jeong in 1434, which was collected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ibrary. While most of the existing property inheritance records are known to have been produced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this record was made at the early Joseon period. It is the seventh earliest record among the reported property inheritance records in Korea. In terms of characters, composition of family members, and aspect of property inheritance, it was judged that this record was an important material to show the social aspects during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and the early Joseon dynasty.

Because of severe damage to the front part, the background and reasons for her distribution of property cannot be accurately determined. However, it is assumed that there was the first distribution in 1418 before her husband Shin Bo-an died and, 16 years later, 1434 Mrs. Jung gave her all slaves to her two sons and two daughters. This time slaves missing in the first distribution and slaves delivered from several relatives are distributed. At present, Bun-geup mun-gi (分級文記) of a total distribution for her two sons and two daughters is not

exist. Only Gip-bu mun-gi (衿付文記) of the detailed inheritance record for her eldest son Shin Sabong remains. All of the assets inherited by her eldest son Shin Sabong were Slaves, with a total of 51 slaves transferred from eight places.

Through Mrs. Jeong's Property Inheritance Record, this paper examined the composition of Shin family, inheritance culture and the feature of property inheritance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The features foun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Buddhist monk uncles on both sides of Shin Bo-an and Mrs. Jeong and the slaves were handed down by their consanguineous monks. This indirectly shows that in that period it was a common phenomenon that a son from a bureaucratic family leave his family to become a Buddhist monk, just as it was at the end of Goryeo Dynasty according to several record. Second, there are various and distinct examples of slave transmission from collateral relations. Unlike the general case that slaves inherited from lineal relatives such as father, mother, wife, and grandfather, in Jeong's record, more collateral relatives such as uncles and aunts in distant kinship and even younger brother transmitted their slaves to Mrs. Jeong. And the number of slaves transmitted from those collateral relatives were 1.5 times many of them from lineal relatives.

Keywords

Mrs. Jeong, the 15th Century Joseon, Property Inheritance Record, Yeongwol Shin Clan in Gyeongju, Property Inheritance, Shin Bo-an, Shin Sabong